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신체화경향에 관한 연구

홍수민 · 한지형¹ · 김희경² · 안용순[†]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¹백석문화대학 치위생과, ²강릉원주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Su-Min Hong, Ji-Hyoung Han¹, Hee-Kyoung Kim² and Yong-Soon Ahn[†]

Dept. of Dental Hygiene, Eulji University, Seongnam City, 461-713,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Beakseok of culture University, Cheonan City, 330-704, Korea

²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K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angnung City, 210-70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method and the somatization symptom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propose strategies for effective instru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survey was perform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or 268 dental hygiene students who have recently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by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Its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verage' and 'Unsatisfactory' were 32.5%, 42.2% and 25.4%, respectively.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ere 'insufficient education of college'(29.8%),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e'(23.4%), 'interpersonal relationship'(21.3%) in order. 2. Somatization symptoms was positive correlation(0.307, $p < 0.01$) associated with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lso it was negative correlation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level of the subjects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 factor was found the most significantly high as much as 0.331, according to the analysis carried out between subordinate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omatization. 3. According to stress coping method, Subjects were distributed into two group of active method and passive method. Thereaft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of somatization symptom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tive method group and passive method group.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suggests that effective management program of clinical practice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o make them cope with stress and somatic symptom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

Key word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tress, Stress coping, Somatization

서 론

치과위생사는 치과영역에서 예방치치와 진료협조 및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으로 최근 치과 의료계 현장에서는 능숙한 임상실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치위생 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¹⁾ 치위생 교육의 교과과정은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대별되며 임상실습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교과목이다.

치위생 교육에 있어 이론과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강의만으로는 장래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지식, 기술, 태도와 임상적 판단 등이 부족하므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해지는 실습 교육은 필수적이며²⁾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³⁾.

그러나 실제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31-740-7228
Fax: 031-740-7352
E-mail: ahnys56@eulji.ac.kr

장 등⁴⁾은 임상실습현상이 완전히 통제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임상실습에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경우도 많을 수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실습경험으로 위축 내지 좌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상실습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의 임상실습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⁵⁾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정서적 스트레스의 기능을 하여 건강악화 행동을 유발하며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⁶⁾.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신경·생리학적인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신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⁷⁾ 특히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⁸⁻¹¹⁾.

신체화란 병리적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적 불편감이나 증상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경향, 그리고 그것을 신체 질병으로 귀인하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경향으로¹²⁾ 신체화증상이 만성화되면 치료가 쉽지 않게 되므로 초기에 신체증상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⁷⁾. 신체화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갈등은 각 개인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¹³⁾ 단순히 스트레스 사건의 존재유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이 질병 과정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¹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으로 보고, 그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적극적 방식인 문제 중심적 대처와 소극적 방식인 정서 중심적 대처로 크게 나누고 있다¹⁰⁾.

스트레스를 대처해 가는 방식은 인간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식과 심리적 갈등을 신체질환으로 표현하려는 양상에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¹⁰⁾.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 증상의 유발 즉, 신체화 경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신체화 경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신체화 경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학생들의 임상 실습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임상실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4월 까지 약 2개월 간 경기도 지역 4개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이면서 최근 임상실습을 마쳤거나 실습 중에 있는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중 성실하게 답변한 총 26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1)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도구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로는 심¹⁵⁾과 황⁵⁾의 연구도구를 김¹⁶⁾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환경, 대인관계, 역할 및 활동, 이상과 가치의 4개 하위요인 별로 각 7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 α 값은 .834로 높게 나타났다.

2)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

Folkman과 Lazarus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에 기초하여 김¹⁷⁾이 요인 분석하여 선택, 개발한 척도를 박¹⁸⁾이 발췌하여 구성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의 1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¹⁸⁾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829로 나타났다.

3) 신체화 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는 Derogatis에 의해 개발된 총 90문항의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로서, 국내에서는 김¹⁹⁾등에 의하여 표준화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신체화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 는 .892로 높게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 및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임상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신체화, 임상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신체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신체화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신체화 경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1세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268명중 2학년은 37명으로 13.8%, 3학년은 231명 86.2%였다. 임상실습기관은 대학병원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38.4%, '보통이다'가 53.4%, '건강하지 못하다'가 8.2%였다.

2. 연구대상자의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36.6%,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은 42.5%였으며 불만족은 20.9%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32.5%, '보통'이 42.2%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고 답한 대상자의 비율도 25.4%에 달하였다.

임상실습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불만족 원인을 조사한 결과는 임상실습에 대비한 학과의 교육과정이 '불충분 했다'가 29.8%,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23.4%,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lassification	Divisions	Frequency	Percentage
Academic year	Sophomore	37	13.8
	Junior	231	86.2
Clinical practice institute	Local dental clinic	19	7.1
	Dental hospital	42	15.7
	Dental clinic in general hospital	76	28.4
	Dental college hospital	128	47.8
	Public health center	3	1.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Unhealthy	22	8.2
	Average	143	53.4
	Healthy	103	38.4

Table 2.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ubjects

Item	Divisions	Frequency	Percentage
Major	Unsatisfactory	56	20.9
	Average	98	36.6
	Satisfactory	114	42.5
Clinical practice	Unsatisfactory	68	25.4
	Average	113	42.2
	Satisfactory	87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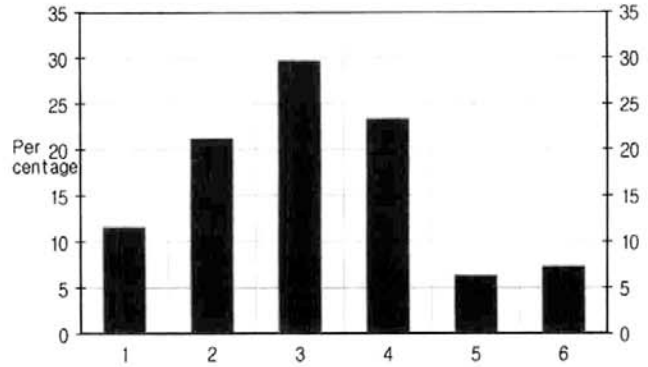


Fig. 1. The reason of dissatisfaction

1. Environments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3. Insufficient education of college. 4. Inappropriate work. 5. One's problem. 6. Others

3. 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 및 신체화경향간의 관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 및 신체화경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 < 0.01$), 신체화 경향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또한 신체화 경향과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록 상관계수는 .307로 낮았으나 ($p < 0.01$)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화 경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상실습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신체화경향간의 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신체화 경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4개 하위요인 모두 신체화 경향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p < 0.01$) 4개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요인과 신체화 경향간의 상관계수가 .331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신체화 경향 유발에 보다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in satisfaction level,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1 Satisfaction with major	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 Stress of clinical practice	4 Stress coping	5 Somatization
1	1				
2	.113	1			
3	-.339(**)	-.265(**)	1		
4	.058	-.108	.103	1	
5	-.155(*)	-.125(*)	.307(**)	.140(*)	1

*: $p < 0.05$, **: $p < 0.01$

Table 4. Correlation in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and somatization.

	1 Circum- stanc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3 Role and activity	4 Value and ideal	5 Somatization
1	1				
2	.419(**)	1			
3	.413(**)	.550(**)	1		
4	.346(**)	.498(**)	.552(**)	1	
5	.173(**)	.331(**)	.189(**)	.246(**)	1

** : $p < 0.01$

5.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신체화 경향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적극적 방식인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소극적 방식인 정서중심 대처와 심미적 사고로 분류되며 각기 신체화 경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화 경향은 소극적 대처방식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p < 0.01$).

6. 스트레스대처방식에 따른 분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각각의 대처방식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각기 적극적 항목과 소극적 항목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 두 항목의 총점 간 점수 차가 5점 이상 나는 경우만을 선별한 결과 총 99명이 선택되었고 적극적 대처그룹과 소극적 대처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Somatization in stress coping methods

	1 Active	2 Passive	3 Somatization
1	1		
2	.422(**)	1	
3	.054	.184(**)	1

** : $p < 0.01$

Table 6. The stress coping methods.

Item	Divisions	Frequency	Percentage
Stress coping methods	Active	56	56.3
	Passive	43	43.4

Table 7. Somatization by stress coping methods

	N	M	SD	T	P
Active	56	8.96	8.140	2.175	0.032*
Passive	43	12.77	9.222		

* : $p < 0.05$

7.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신체화 경향

상기한 방법에 의해 선별된 연구 대상자를 적극적 대처 그룹과 소극적 대처그룹으로 나누고 두 집단간 신체화 경향 점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신체화 경향 점수 평균이 12.77로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평균 8.96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p < 0.05$),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할수록 신체화 경향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치위생 교육에 있어 임상실습교육은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하여 살아있는 지식 체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치위생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실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치위생 교육과정의 매우 필수적인 핵심 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임상교육은 학교가 아닌 외부의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은 낮은 실습현장과 전문지식의 부족, 대인관계,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신체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체증상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임상실습 과정 중 느끼는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과에 흥미를 잃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명확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학생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스트레스를 다루어가려는 노력인 대처는 그 투사방식에 따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를 적극적 방식의 대처로,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소극적 방식의 대처로 나눈 모델을 사용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환경의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을 말하고, 사회적지지 추구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또한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고, 소망적 사고는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²¹.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32.5%, '보통이다'는 42.2%, '불만족이다'는 25.4%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²²⁾의 만족도 52.3%에 비해 다소 낮으나 박³⁾, 김¹⁶⁾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42.5%로 대체로 박³⁾, 이²²⁾, 양²³⁾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임상실습 불만족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각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21.3%, 임상실습에 대비한 학과교육의 불충분이 29.8%, 실습병원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이 23.4%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학과 교육과정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비한 전문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학과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임상실습에 대비한 다양한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신체화 경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307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 < 0.01$)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이는 스트레스와 신체화 경향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7),10)}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신체증상에 관한 박²⁴⁾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 신체화 경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대인관계 요인의 상관계수가 .331로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p < 0.01$), 이는 앞서의 임상실습 불만족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에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항목 및 신체화 경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대처 항목은 신체화 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극적 대처항목은 신체화 경향과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선별하여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라 적극적 대처 그룹과 소극적 대처 그룹으로 나눈 후 신체화 경향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적극적 대처 그룹에서 보다 낮은 신체화 점수 평균을 보여 소극적 대처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신체화에 관한 임¹⁰⁾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소극적일 수록 신체화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신체화 경향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 할수록 신체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의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에 임하는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신체

화 증상을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분석이므로 대상자의 개인 성향이나 응답태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조사 대상 표본 집단의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체화 장애의 유발에 관련 있는 여러 요인들을 제외하고 스트레스 요인만을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로 향후 개인 특성, 스트레스 지각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신체화 경향간의 관계를 조사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 지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과 재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상실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한다'는 32.5%, '보통이다'는 42.2%, '불만족이다'는 25.4%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불만족 원인은 각각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21.3%, 임상실습에 대비한 '학과교육의 불충분'이 29.8%, 실습병원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이 23.4%로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2. 신체화 경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307, $p < 0.01$)를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 신체화 경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대인관계 요인의 상관계수가 .331로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 < 0.01$).
3.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라 적극적 대처 그룹과 소극적 대처 그룹으로 나눈 후 신체화 경향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적극적 대처 그룹에서 보다 낮은 신체화 점수 평균을 보여 소극적 대처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1. Butters JM, Vaught RL: The effect of an extram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perceived clinical compe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Educ 63(5): 415-20, 1999.
2. Chun JY, Lee HO, Kim J: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tress with clinical dental practice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iene Science 7(2): 89-96, 2007.
3.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iene Science 6(4): 243-249, 2006.

4. Chang BJ, Song KH: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ienic Sciences* 11(1): 81-90, 2005.
5. Hwang SH: A study on the stressor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Master's Thesis of Dankook University, 2004.
6. Chon KK: Emotion and Health: Cultural approach. *Kor J Psychol and social issue* 6(2): 175-199, 2000.
7. Oh HJ: The impact of job stress and alexithymia on somatization. Master's Thesis of Daegu University, 2008.
8. Lee IH: Effect of stress and coping on body perception. *Kor J Psychol and Health* 4(1): 80-93, 1999.
9. Kim YC, Jeong HK, Lee SH: A study on the life stress effects on psychiatric symptoms and physical condition in normal subjects.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28(2): 282-291, 1989.
10. Im JW: A study about factors affecting the somatization symptom of the middle aged woman. Master's Thesis of Ewha University, 1999.
11. Jeong SP, Kim JK, Lee SK: A study on effect of life event and stress perception on psychiatric symptoms and physical condition.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12(2): 134-144, 1996.
12. Lipowski ZJ: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1): 1358-1368, 1988.
13. Ko KB: Stress and psychosomatic Medicine. pp.6-10, 2002.
14.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
15. Shim HS: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 at Kwangju Chonnam area colleges. Master's Thesis of Chosun University, 2000.
16. Kim HJ: Stresses and its related factors due to clinical demonstration in college students of dental hygiene. Master's Thesi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8.
17. Kim JH: Relation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Docto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18. Park J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Master's Thesis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1995.
19. Kim KI, Kim JH, Won HT: SCL-90-R manual.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co. 1985.
20. Jang JH: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achievement motive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Master's Thesis of Chung Ang University, 2000.
21. Shin HD: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on the ways of coping stress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of Kwangwoon University, 2006.
22. Lee JH: A study on causes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Hygiene Science* 9(1): 137-143, 2009.
23. Yang J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4(3): 205-216, 2000.
24. Park JH: The study of stress on clinical practice, somatic symptom, and self-disclosur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8.

(Received May 1, 2009; Revised June 10, 2009;
Accepted June 17, 2009)

